



특집 08

UBITOPIA 생활윤리기술의 사업화 성공조건

박승창 (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

목 차 »

1. 서 론
2. UBITOPIA 지향된 u-Korea의 과제들
3. UBITOPIA 생활윤리기술의 사례들
4. UBITOPIA 생활윤리기술의 사업화 성공조건
5. 결 론

1. 서 론

2013년 2월 25일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국가의 건설’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 창조경제정책을 주관할 미래창조과학기술부를 정부조직체계 내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Vision과 국가발전전략에 부응하듯이, 요즘 u-Korea 3.0 사회에는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스마트 노트, 스마트 TV, 스마트 전자책/게임 단말기, 스마트 센서,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전력망), 스마트 하이웨이(고속도로), 스마트 의류, 스마트 국방, 스마트 경찰, 스마트 시티(도시),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정보화->지식화->지능화->지혜화’의 방향으로 사회와 국가의 진화를 산-학-연-관-민이 주도하고 있다¹⁾.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들로써 개인과 가정의 <의, 식, 주, 이동> 생활이 공기처럼 모든 곳에 채워질 2030년 UBITOPIA¹⁾5.0에 지향된 호모 모빌

리언스·호모 디지쿠스²⁾의 인구가 전 세계 각 국가의 부유층에서 급증하게 될 변곡점이 2025년경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인류는 지하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에너지로 대체해 나아가며,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수증기의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Market)의 구축·운영에도 노력하고 있다²⁾.

인 ‘소셜체 유비토피아’에서 세계 최초로 Ubiquitous+Utopia=Ubitopia가 명명되었고, 그 후 유비쿼터스 생활용 u-서비스들의 출현에 따라 2009년7월29일 진한M&B 출판도서인 ‘유비쿼터스생활윤리’에서 유비토피아를 정의하였음.

- 2) 윤종록박사의 2009년7월, 생각의나무 출판도서인 ‘호모디지쿠스로 진화하라’에서 제시된 신인류 모델이고, 카이스트 이민화교수의 2012년7월, 전자신문사 출판도서인 ‘호모 모빌리언스’에서 제시된 신인류 모델임.

1) 박승창박사의 2004년7월1일 전자신문사 출판도서

다만, 대한민국은 온실가스의무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기 공표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감축할 계획인 가운데, 2012년 12월 8일 22시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고위급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효력이 2020년까지 연장되었고, 유엔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사무국의 유치가 공식 인준되었기에, 최근에 GCF사무국과 함께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센터(UNAPCICT),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동북아시아사무소와 인천자유경제청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이타워에서 근무를 개시하게 되었다³⁾.

이런 국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윤리결핍사회로 진단받고 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14개 지표에서 4개를 제외하고 모두 OECD 평균에 미달하였다. 특히 소득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를 비롯한 빈곤율(%), 공공사회지출, 부패인식, 이산화탄소 배출, 투표율(%), 사회참여 같은 7개 지표에서 ‘G20위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통합수준 20위 내에 들어가지 못했다⁴⁾. 이에, 본 논문은 UBITOPIA 생활윤리기술의 사업화 관점에서 u-Korea의 과제들을 고찰하고 두개의 사례들을 분석한 후, 그 기술사업화의 성공조건들을 제시한다.

2. UBITOPIA지향된 u-Korea의 과제들

유비쿼터스 모바일 컴퓨팅, 유비쿼터스 방송통신망, 유비쿼터스 생태도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u-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유비토피아를 이룩하는 관점에서 볼 때, u-Korea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1) 육해공, 2) 시설과 사물, 3) 법제도, 4) 자본금융의 유형과제와 국민과 사회의 무형과제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최우선적 국가의 요소인 국민 개개인의 두뇌(Brain)과 몸(Body)에 교육된 ‘지능, 감성, 사회, 도덕, 재정’ 부문별 통계적 지수(Index)의 개선을 위하여 개인 생애에 작용하는 윤리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u-Korea의 유형/무형 과제들을 분석한다.

2.1 유형 과제

2.1.1 과제1 : 육해공 영토의 수호

유형과제로서 육해공에 걸쳐있는 과제들로는 대한민국 지리적 기반에 최근 1)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만들고 있는 전쟁의 포격(공습)/테러/핵실험/방사선(낙진), 2) 불안한 지구환경이 만들고 있는 육상의 지진/화산/Tsunami(해일)/태풍/한발(가뭄)/홍수/산불/폭설/혹한/폭염/황사와 각종 전염병/슈퍼바이러스, 3) 불량한 생활환경과 위법적 범인들이 만들고 있는 각종 폭력/재해/재난/범죄/사건/사고/문제/중후군, 4) 미치광이들이 만들고 있는 짝퉁/방화/범죄/중독/싸움/다툼/마약/도박/정신병/자살/사이비종교, 5) 악한 해커들과 국제 테러집단이나 적대국가가 한국을 선제공격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전쟁 등이 있다.

2.1.2 과제2 : 시설과 사물의 보존

유형과제로서 시설과 사물에 걸쳐있는 과제들로는 대한민국 산업적 기반에 최근 1) 불량한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불량품, 2) 무책임한 기업이 만들고 있는 유해물질/온실가스/독극물/오염물질의 배출, 3) 비규범적인 기업이나 개인이 만들고 있는 쓰레기의 방치와 방류, 교통사고/추돌사고/파괴/물건의 고의적 파손, 오염/오폐수의 방류 등

이 있다. 특히, 시설물은 국민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능과 성능에 어긋나거나 전기화재 또는 폭발사고, 삼성전자 불산 가스 누출사고처럼 독극물의 방류사고와 안전불감증이 있다. 또한, 시설물은 공공재화/국가재화로서 교각/도로/철교/철도/항만/공항/문화재/군사시설물의 불안전성과 위험성 등이 있다.

2.1.3 과제3 : 법제도의 공정성 확보

유형과제로서 법제도에 걸쳐있는 과제들로는 국가와 사회의 법제도적 기반에 최근 1) 비윤리적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이 만들고 있는 권력/부유/명예의 독점과 상속, 2) 전통적 지역 호족들과 상류층 귀족들이 만들고 있는 재산/특표/선거의 독점과 상속, 3) 반민주적 기관들과 법인단체들이 만들고 있는 권력/부유/명예의 보수 연대구축과 폭력/중상/모략 등이 있다. 특히, 재벌의 계열사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하여 자유노조의 설립을 억제한 경우 또는 정부산하 공사나 발주기업 종사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하청기업의 특허권을 유린하거나 우수한 개발자를 빼내가는 경우가 있다.

2.1.4 과제4 : 자본금융의 운영

유형과제로서 자본금융에 걸쳐있는 과제들로는 국가와 사회의 자본금융적 기반에 최근 1)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 금융인, 기업인 또는 금융거래고객이 만들고 있는 은행고객예치금횡령, 공금횡령과 위조지폐(공문)의 발행과 사용, 2) 과도한 소비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카드연체, 금융사기와 카드빚돌려막기, 3) 무감각한 부채관리를 행하는 기업인이나 사업가나 국민 개인이 만들어 내는 세금연체, 벌금연체, 채무연체, 거대하고 장기화 된 부채규모, 4) 금융범죄를 고

의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인이 만들고 있는 사기, 횡령, 뇌물수수, 사문서위조/변조, 명의도용,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파밍(Pharming)/스미싱(SMising), 5) 재산범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인들이 만들고 있는 절도, 강도, 강탈 외에도 4대 성범죄가 있다. 특히, 자본금융 분야의 유형적 과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실업자, 실직자 또는 거지가 양심을 잘못 사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2.2 무형 과제

2.2.1 과제1 : 사회문화의 통합과 계몽

무형과제로서 사회 통합에 걸쳐있는 과제들로는 OECD의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통합수준과 진단결과가 있다. 대한민국에 정치쿠데타가 발생했던 1961년5월16일부터 2013년 현재까지 꾸준하게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의 노력과 농어촌의 새마을운동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의 '2자녀 갖기 운동'이 지금은 인구고령화의 문제와 인구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지속성에 치명적인 자살률(%)은 인구10만명당 30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있는 초/중/고 학교의 정규교육에 대한 사교육의 폐해가 도처에 돌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2.2.2 과제2 : 국민윤리의 보급과 계몽

무형과제로서 국민 윤리에 걸쳐있는 과제들로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직업들 중에서 초/중/고/대 학생, 공무원의 선발시험에서 국민윤리과목의 평가시험이 있다. 국민의 공공질서에 해당되는 1) 교통규칙의 준수가 잘 되지 않고, 2) 공공시설의

정화와 깨끗한 사용이 잘 되지 않고, 3) 노상방뇨/고성방가를 비롯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도둑질(절도), 파괴, 훼손, 오염, 가로채기, 줄서기의 새치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게으른 게임중독자들이 취업도 하지 않고, 창업에도 관심 없으며, 문자인식능력마저 떨어져서 ‘시각, 청각’을 잃은 정보화/지식화의 장애인 또는 인체오감이 부실화된 ‘식물인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2.2.3 과제3 : 정보통신/인터넷/사이버 윤리의 개발과 보급

무형과제로서 정보통신/인터넷/사이버 윤리에 걸쳐있는 과제들로는 정보통신설비로 규정된 IT Korea 기반시설에 최근까지 괴멸되거나 삭제되지 못하는 1) 각종 범죄(절도, 강도, 사기)가 있고, 2) 각종 미디어 중독(인터넷,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기, 약물)이 있고, 3) 각종 침해(해킹, 크래킹, 악성코드유포, 스팸메일 발송)이 있으며, 4) 각종 테러(독극물, 오염물, 괴물, 파괴, 파손, 음해, 모략, 욕설)이 있다. 특히, 사이버 마약 ‘I-doser’의 유포 또는 악성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과 유혹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슉/도박판의 “먹튀(먹고 튀는 행위자)”과 악성코드를 은닉시킨 바카라게임이나 스팸메일이 무작위로 배포되는 경우가 있다.

2.2.4 과제4 : 콘텐츠 윤리의 개발과 보급

무형과제로서 콘텐츠 윤리에 걸쳐있는 과제들로는 국민들의 정신적, 심리적, 영혼적 교육시설로 규정된 콘텐츠 기반에 최근까지 폐지되거나 망각되지 못하는 1) 저질의 중독성에 더하여 유혹성질까지 내재되어 있어서 정상인까지 비정상인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드라마, 쇼,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광고, 홍보, 전단지,

음란물/폭력물/마약물/전쟁물/사행성게임(도박)의 파일(CD, USB포함)과 함께 저작권 침해된 불법복사물/유포물이나 비인가된 화질/음질 모두 형편없이 나쁜 저질 콘텐츠상품들이 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꽃튀는 적대시, 욕하는 행동, 타인비하 발언,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과 ‘노출증 발발이’의 경우가 있다.

3. UBITOPIA생활윤리기술의 사례들

방송콘텐츠를 비롯한 신문, 전문지, 잡지, 만화 외에도 (정기/비정기)간행물, 카탈로그, 브로슈어, Hand-out, 메모, 쪽지 같은 종이 공해 외에도 폐업(성매매업)점포의 찌라시, 뼈라가 도시의 거리와 자동차 유리창에 꽂혀 있는 상태가 “정보/통신/방송/콘텐츠/인터넷”의 서비스와 콘텐츠 기술로 얼마간 사라져 가는 측면도 있으나, 아직 “u-Korea”를 낙원사회(UBITOPIA)로 만들기엔 무척 부족한 측면들이 역력하다. 최근 국민들은 저질적 공해들에 맞부딪힐 때마다 국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규칙과 법제도가 제/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UBITOPIA생활윤리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들 두개만 소개한다.

3.1 생활예절/교통 안내용 어플

스마트폰 어플의 한가지로서 앱스토어에선 명절 상차림을 도와주는 ‘어플’이 등장했다. SK텔레콤의 T스토어에서는 ‘제사상 차리기’, KT의 애플앱스토어는 ‘차례상’등으로 검색하면 어플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차례상 차리기의 기본적인 진설법 부터 자세한 설명과 상차림을 이미지로 표현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명절 상차림 때 바로 스마트폰을 보고 적용할 수도 있

겠지만 어르신들 눈에는 곱지 않을 듯. ‘진절법’의 경우 지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공통적인 부분만 보여준다.

특히 ‘예절’ 메뉴에서는 남/녀가 절하는 방법, 한복예절, 명절예절 등의 정보를 이미지와 함께 자세하게 볼 수 있다. 명절에 인기를 끌고 있는 어플 중 ‘친인척호칭법’도 인기다. 추석을 비롯한 명절에 가족행사시 어르신들 그리고 친인척의 촌수와 호칭법을 알려준다. 또한 이미지와 함께 가계도를 설명해 준다. 이와 같은 예의범절 어플 외에, 고속도로 및 국도의 공사, 사고 등 교통속보, 주요 도시 간 예상소요시간과 최단경로, 정체 예상구간 및 우회도로 안내 등 추석 고향길 귀성(귀경)길에 필요한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한다¹⁵⁾.

3.2 개인/가정/법인/국가 보호용 어플

개인의 보호 서비스로서 신변보호, 물리적 보안, 정보보호, 통신망 보안, 저작권과 재산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보호, 인맥보호, 가정보호, 법인보호와 국가보호가 있다. 보호를 공격하는 종류가 전쟁과 테러 또는 병원균살포(생화학전) 외에도 사이버공격으로 해킹, 크래킹, 스팸메일링, 악성코드유포, 컴퓨터바이러스유포와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공격이 있고, 물리적/신체적 상해를 위협하거나 훼손시키는 공격이 있으며, 사용자(그룹)의 모든 종류의 통신망을 파괴하고 인맥을 훼손하는 “신상털기” 같은 공격도 있다¹⁶⁾.

인터넷 제공자는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떤 조직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라는 조직이 보안 Tool을 판매하고 보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CERT는 인터넷을 사실상 제어하지 못하며, 어떤 종류의 보안정책을 강요할 수 없다.

이것은 사용자 스스로가 인터넷 접속의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대기업들은 사내 정보 네트워크가 외부에 노출되어 기밀이 누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므로, 각종 공인인증서와 암호화도구들이 보급되고 있다.

4. UBITOPIA생활윤리기술의 사업화 성공조건

위와 같이, 유티토피아생활윤리 기반의 어플이 재생되고 작동하는 스마트폰/노트/패드에서 윤리성과 도덕성이 담겨있는 어플들은 디스토피아(Distopia)범죄/사건/사고/악성증후군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인류의 오랜 숙원인 지상 낙원을 21세기에 구현할 유티쿼터스 모바일 컴퓨팅, 유티쿼터스 네트워크(RFID/USN/UOC 포함), Green IT융합서비스, 유티쿼터스 콘텐츠, 유티쿼터스 친환경도시(EcoCity)와 같은 부문에서 기업들의 신기술과 신상품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 구매되도록 만드는 기술사업화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한 다음, 사업화-상업화-기업화 부문에서 필요한 성공 전략을 제시한다.

4.1 필요조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업자들과 기업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보다 더 나은 가치와 더 나은 혁신을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보다 더 많은 돈과 지하자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다.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쟁의 방향은 차세대 신제품의 특성에 “낮은 소모전력, 적은 제품발열, 적정 가격, 높은 품질, 높은 신뢰성/안전성/안정성/충실성, 적정한 기능의 정확성과 성능의 정밀성”을 투입하는

필요조건으로 등장하였다. 일례로, 2013년 1월 30일에 한국의 나로호 로켓 발사가 성공하게 된 시스템설계교본 속에도 이러한 필요조건들이 들어 있다.

산업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산업이 생산하는 상품들이 외국의 시장으로 수출되고 외국의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들이 한국의 시장으로 수입되는 내역 속에서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비중 > 수입비중”의 부등식 구조처럼 한국의 차세대 유비쿼터스생활윤리기술들의 사업화 국면에도 대기하고 있을 “통화환율, 원유가, 기업주가, 은행금리(%), 국제금가격, 선물옵션가격, 채권가격, 지하자원광물가격, 원자재가격” 등이 신상품의 기업에게 제조이윤과 판매이윤을 보장하는 가격구조와 유통채널의 거래과정 속에도 이러한 필요조건들이 들어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공업화와 도시화를 기반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구축된 기업의 가치사슬 구조 속에서 “원자재유통기업->신상품제조기업->연구개발기업->건설팅기업(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를 포함)”이 상호 갑-을 또는 갑-을-병 또는 갑-을-병-정의 형태로 거래를 행하는 문화가 보편화 및 전국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어촌/산촌에도 이제는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개인이 특화된 경영기법에 의하여 자신의 상품들을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에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다.

4.2 충분조건

1998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후부터 역대 정부가 정책을 “기획->실행->평가->조정”의 과정에서 밝혀진 가계부채 1,000조원의 규

모를 해결하고자 2013년 3월 말로 예정된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운영원칙을 마련했지만⁷⁾, 이 정책은 금융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 해이 논란, 우리금융 민영화, 정책금융기관 재편, 부실기업 구조조정, 서민·중소기업 지원’같이 그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13년부터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만들기로 공약한 박근혜대통령과 “박근혜정부각료들”의 관점에서 준비해야만 하는 기금과 재원의 조달과 관리에 충분조건이 들어 있다.

유비토피아생활윤리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할 국책/민간 연구소와 각종 기업은 과학기술경쟁의 관점에서 보다 치밀하고, 정밀하고, 튼튼하며, 계산적인 “지적재산권승리전략”이 연구소와 기업 간의 기술사업화 계약과 동맹체제에 충분해야 된다. 보다 더 확실한 법적 장치를 “상호 양해 각서”를 교부함으로써 Global Cluster를 구축한 다음, 그 중심에는 1차적으로 산-연 또는 산-학-연의 형태로 추진하는 절차와 방법이 요구된다. 바로 그 외곽에는 2차적으로 관-민 협동지원체제의 형태로 추진하는 절차와 방법이 요구된다. 바로 그 외곽에는 3차적으로 국민-국가-재외한국인-해외동포가 동참체제의 형태로 추진하는 절차와 방법이 요구된다.

한편, FTA의 필요성 하에서도 Block화로 진행하고 있는 세계 경제 체제와 지구 환경의 불안한 상황 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2013년 이후에도 결코 제3차 세계대전이 없는 “평화와 공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70억명 인구의 생존과 생애를 보장해야 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5,000만명의 국민들에게 “유비토피아 지향된 u-Korea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그 이상적인 목표와 목적을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으로 몇%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 대한 만족도평가가 마련되어야 하고, OECD 같은 국제기구가

평가하고 제시하는 “사회통합지수”같은 각종 지수의 평가결과가 객관적 증거로서 충분조건이 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조사/분석/연구한 바와 같이, 유비쿼터스 개념의 각종 정보/통신/방송/소프트웨어/콘텐츠 기술을 어느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는 첫 단계에는 글로벌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충분조건으로서 산업, 경제, 금융, 사회, 문화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정치의 통찰력과 강한 추진력이 충분해야 된다. G20경제선진국으로 한층 더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G5(국가경제력5위)E5(국가윤리력5위)의 유비토피아를 2030년경에 대한민국에 구현하는 관점에서 최근 한국의 사회와 정치를 분석할 경우, 본 논문에서 분류한 무형과제와 유형과제의 각 부문에서 절대적으로 역부족이거나 상대적으로 불균형/불균질된 현상들이 아직도 방방곡곡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 이웃이라는 사회적 범위를 막론하고 모두 함께 u-Korea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닥쳐오는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생존하며 “애국가와 대한민국 만세(만년의 세월동안 존속)”가 이룩되기를 원하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 2013년 박근혜정부에 도착했다. 특히, 기업이 사업화를 통해서 국내/국제 시장에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고객만족·고객감동”이라면, 정책적/법제도적으로 경제(무역)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창업과 취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직업인과 기업가 양성’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 폐해들까지도 치유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의 운영체제도 확충 및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u-Korea 행복국가 실현의 정부적 노력에 동참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회지도층의 개인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총수와 그의 상속인, 전국의 부자들 역시 봉사, 공헌, 책임, 공유, 소통을 행동하는 마음과 자세를 최우선적으로 가져야만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유비토피아’를 2030년까지 이룩할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과거의 권위적/고압적/탐욕적 자세를 폐기해야 하며, 신시대의 공손/친절/배려를 습관화하는 고품격 인간성을 구비해야만 하기 때문에 u-Korea 사회통합의 핵심인 ‘유비토피아 생활윤리’를 어떤 산·학·연이 개발한 신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신제품으로 판매하는 기술사업화의 성공조건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참고 문헌

- [1] 박승창, “스마트 감성조명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 방향”, NIPA ITFIND 143호, 2012-11-29.
- [2] 박승창, 소설체 유비토피아, 전자신문사 출간, 2004-07-01.
- [3] MK뉴스, ‘GCF 사무국 들어설 송도아타워 완공’, 2013-02-28.
- [4] 사회통합위원회, 2012년도 연례보고서, 2013-02-21.
- [5] 광주드림신문, ‘스마트폰으로 추석명절 편리하게’, 2010-09-20.
- [6] 박승창 외, ‘유비쿼터스생활윤리’, 진한M&B 출간, 2009-07-29.
- [7] 김덕현, ‘행복하지 않은 국민행복기금’, 이투데이, 2013-03-15.

저 자 약 력



박 승 창

이메일 : scpark39@naver.com

- 1988년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전자전공(학사)
- 1998년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컴퓨터&VLSI(석사)
- 2008년 전남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 RFID/USN(박사)
- 1989년~199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
- 1996년~2005년 액티브제어통신연구소 연구소장
- 2005년~2013년 현재, (주)UOC 대표이사
- 2007년~2012년 (사)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 회장
- 관심분야: 유비쿼터스 모바일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생태도시, 유비토피아, Green IT, 스마트감성조명, Green신재생에너지, 유비쿼터스생활 윤리, 정보통신윤리, 인터넷윤리, 사이버윤리, 과학기술윤리